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서 전한 근황 "자 소식 궁금해"

등록 2024.03.16 15:53:37



[서울=뉴시스] 배우 이범수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부인 이윤진의 근황이 재조명됐다. (사진=이윤진 인스타그램 캡처) 2024.03.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호령 기자 = 배우 이범수(55)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부인 이윤진(41)의 근황이 화제다.

이윤진은 지난달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많이 치유되고 있는 중. 걱정하고 연락주는 친구들과 고마워"라고 적었다. 현재 발리에서 살고 있는 이윤진은 딸과 함께 해변에서 찍은 사진과 일상이 담긴 사진 등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이윤진은 "다음이 소식 넘 궁금하고"라며 아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 상황을 털어냈다. 16일 이범수와의 파경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윤진의 글이 재조명됐다.

이날 이범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범수가 이혼 조정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적인 내용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MHN스포츠는 이윤진이 이범수를 상대로 지난해 말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윤진은 지난해 12월19일 SNS(소셜미디어)에 "나의 첫 번째 챕터의 끝"이라며 이범수를 태그했다. 한 외국 여성 영상도 공유했다. 영상에는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이윤진은 "내 친절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I decided to stop giving my kindness to the closest one who doesn't absolutely deserve it. All done)"고 덧붙였다. 부부는 서로 팔로우도 끊었다. 이범수는 자신의 팔로우를 모두 삭제하고, 게시물도 지웠다. 이후 "이윤진은 이범수 측에 협의 이혼을 요구했지만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아 지난해 말 결국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고 MHN스포츠는 전했다. 현재 두 사람은 별거 중이다. 이윤진은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딸과 함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생활하고 있고, 아들은 이범수와 함께 서울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범수는 1990년 영화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오, 해피데이'(1999~2000) '외과의사 봉달희'(2007) '온에어'(2008) '자이언트'(2010),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2001) '정글러스'(2002) '싱글즈'(2003), '인천상륙작전'(2016) '범죄도시3'(2023) 등에 출연했다. 내달 24일 개봉하는 영화 '범죄도시4'로 인사할 예정이다.

이범수는 2010년 영어 칼럼니스트 겸 국제회의 통역가인 이윤진과 재혼했다. 이윤진은 초혼이다. 슬하에 1남1녀를 뒀다. 이들과 가족은 2016~2017년 KBS 2TV 예능물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해 일상을 공개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이범수(오른쪽), 이윤진. (사진=뉴시스 DB) 2024.03.16.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